

‘불멸의 화가 반 고흐 인 파리’ 전 반 고흐는 파리에서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



탕귀 영감 © 2012 Van Gogh Museum, The Netherlands.

“언젠가 내 그림들이 물감 값 이상의 가격에 팔릴 날이 올 것이다.”

네덜란드의 천재 화가 빈센트 반 고흐(1853~1890)의 이런 ‘소박한’ 소망은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00년 만인 1990년 ‘의사 가셰의 초상’이란 작품이 당시 경매 역사상 최고가였던 8천250만 달러에 팔리면서 보란 듯이 실현됐다.

불꽃 같은 삶을 살다 간 그는 오늘날 미술사에 한 획을 그은 위대한 예술가로 대중의 사랑을 받지만, 생전의 그는 팔리지 않는 그림을 그리는 무명 화가였다.

37살의 젊은 나이에 파리 북쪽 오베르-쉬르-우아즈에서 권총 자살로 생을 마칠 때까지 그는 평생 단 한 점의 작품밖에 팔지 못하는 등 가난과 소외로 점철된 삶을 살았다.

비운의 천재 화가 반 고흐가 파리에 체류했던 2년여 간의 작업을 조명한 대규모 전시가 서울 예술의전당 디자인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반 고흐가 파리에서 활동했던 ‘파리 시기’(1886~1888)는 그가 사실주의적 화풍에서 벗어나 인상주의를 경험하고 자신만의 화풍을 완성한 중요한 시기다.

이번 전시에는 암스테르담 반 고흐 미술관 소장 작품을 중심으로 파리 시기에 그려진 유화 작품 60여 점이 한자리에 모인다. 반 고흐는 평생 36점에 이르는 자화상을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중 27점이 ‘파리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시에는 고뇌에 찬 반 고흐의 모습이 담긴 자화상 9점이 소개된다.

전시 2013년 3월 24일까지
관람료 성인 1만5천 원, 청소년 1만 원
문의 1588-2618

영국을 대표하는 현대미술가의 첫 동아시아 전시회

전시 2013년 1월 27일까지
관람료 성인 8천 원, 초·중·고 5천 원
문의 02-2014-6900

인도 출신의 영국 미술가 아니시 카푸어(Anish Kapoor)의 대규모 개인전이 서울 한남동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열리고 있다.

인도 뭍바이에서 태어나 영국 혼지미술대학과 첼시미술학교를 나온 카푸어는 1990년 베니스 비엔날레 영국관 작가로 선정됐고 1991년 영국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현대미술상인 터너 상을 수상했다.

2009년에는 생존 현대미술가로는 처음으로 런던 로열 아카데미에서 개인전을 열었고 올해 런던올림픽의 기념 조형물 ‘궤도(Orbit)’를 제작하며 영국을 대표하는 작가로 자리매김했다.

동아시아에서는 처음 열리는 이번 개인전에서 그는 작가로서 존재를 알린 초기의 독창적인 분말 안료 작업과 조각 내부의 공간에 주목한 ‘보이드(Void)’ 작업, 최근작 붉은 왁스 연작과 대형 스테인리스스틸 조각 등 18점을 선보인다.

미술관 야외에 설치된 반짝이는 스테인리스스틸 공 73개로 이뤄진 ‘큰 나무와 눈’(2009년), ‘헝기증’(2006년)과 ‘하늘거울’(2009년) 등도 시선을 붙잡는다.



큰 나무와 눈(Tall Tree and the Eye), 2011, 스테인리스스틸, 15x5x5m,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사진으로 만나는 대한제국 황실 사람들

전시 2013년 1월 13일까지
관람료 4천 원
문의 02-2188-6072

황제를 상징하는 황룡포에 서양식 훈장을 단 고종 황제가 근엄한 표정으로 옥좌에 앉아 있다. 이 사진은 1905년 미국에서 파견된 아시아 순방단의 일원으로 내한한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딸 앨리스 루스벨트에게 고종이 하사한 것이다.

고종은 일본의 위협으로 불안한 정치적 상황을 타개하고자 1882년 조미 수호통상조약을 맺은 미국의 도움을 기대하며 ‘미국의 공주인 루스벨트를 극진히 대접했고 자신과 순종의 사진도 찍다. 그러나 그는 미국 순방단이 일본 도쿄에서 미국의 필리핀 통치와 일본의 한국에 대한 보호권을 상호 인정하는 내용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체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음을 알지 못했다.

국립현대미술관과 한미사진미술관은 덕수궁미술관에서 대한제국 황실의 원본 사진을 모은 ‘대한제국 황실의 초상 : 1880-1989’ 전을 열고 있다. 국립고궁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스미스소니언미술관 등 각 소장 기관의 전시나 도서 자료를 통해 소개된 주요 원본 사진과 사료 등 200여 점을



장남 아진을 안고 바라보는 영친왕 부부, 1921, 12x16.6cm, 국립고궁박물관(하정웅 기증).

한자리에서 보여준다. 고종이 앨리스 루스벨트에게 선물한 초상 사진의 원본이 107년 만에 돌아온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인 영친왕, 고종의 고명딸 덕혜옹주 등 일제강점기에 기구한 삶을 산 황실 후예들의 모습도 사진으로 만나볼 수 있다.



세상에 기댈 곳 없는 모자(母子) 이야기 **범죄소년**

중학생 지구(서영주)는 자주 어울리는 친구들과 함께 친구의 친척이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갔다 주인에게 들킨다. 경찰에 잡혀간 지구와 친구들은 약식 재판 받게 된다. 부모가 함께 와 선처를 부탁하는 친구들과 달리 아픈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는 지구는 “집에서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는 판사의 판결로 소년원에 가게 된다.

소년원에 있는 동안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는 슬픔에 잠긴 지구 앞에 죽은 줄 알았던 엄마(이정현)가 나타난다. 출소 뒤 따라간 곳은 엄마도 없혀살고 있는 고향 후배의 집이다. 능력이 없는 엄마는 허구한 날 후배에게 손을 벌리고 결국 후배가 집을 파는 바람에 길거리로 나앉게 된다.

이 영화는 부모 없이 지란 소년과 젊은 미혼모의 삶을 통해 사회가 이들에게 얼마나 가혹한지 보여준다. 소년은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좀도둑질에 가담하고 자신을 놀리는 아이들에게 주먹질을 했다는 이유로 너무 일찍 ‘범죄소년’으로 낙인찍힌다.

열일곱 살에 아이를 낳고 기출한 뒤 16년 만에 아이 앞에 나타난 서른세 살의 엄마 역시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무엇 하나 제대로 배운 게 없는 그녀는 아이와 함께 살 방 한 칸을 마련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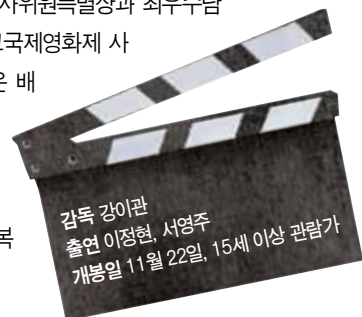
못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이 영화는 우리 사회가 보호하고 지켜야 할 인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묻는다.

책임질 수 없는 아이를 낳은 미혼모는 부모에게서까지 버림받는 경우가 많다. 한 번 소년원에 들어갔다 나온 아이는 사회가 정해놓은 테두리에서 밀려나 인간 대접을 못 받는다. 이들의 고통이 대물림되고 더 큰 비극을 낳도록 방치할 것인가.

현실성 있는 캐릭터와 이야기, 인물의 감정을 세밀하게 포착하는 장면 구성은 관객의 몰입과 공감을 이끌어낸다.

이 영화는 도쿄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특별상과 최우수남우상을 받으며 2관왕을 했다. 도쿄국제영화제 사상 최연소로 최우수남우상을 받은 배우 서영주는 열다섯 살의 어린 나이에 고통을 눌러 담는 깊이 있는 연기를 보여줬다. 가수 활동에 주력하다 오랜만에 스크린에 복귀한 이정현의 연기도 빛난다.



01 브레이킹 던 part2

트와일라잇 시리즈 ‘브레이킹 던 part1’의 속편이자 이 시리즈의 마지막 편.

벨라(크리스틴 스투어트)는 에드워드(로버트 패틴슨)와 결혼해 아이를 낳고 뱀파이어로 새로 태어난다. 뱀파이어가 된 벨라는 에드워드보다 더 강한 힘을 갖게 돼 협곡을 마음껏 날아다니고 거침없이 사냥을 한다. 벨라의 아이 르네즈미는 부모와 늑대인간 제이콥의 보호를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 소녀(매켄지 포이)가 된다.

하지만 뱀파이어 종족의 최대 가문인 볼투리가(家)는 르네즈미가 종족 전체에 위험을 가져올 ‘불멸의 아이’라는 얘기를 듣고 르네즈미를 제거하려 한다.

영화 초반 뱀파이어가 된 벨라의 달라진 모습이나 커플이 함께 사냥을 하는 장면은 흥미롭지만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종결편으로는 아쉽다.

감독 빌 콘돈 출연 크리스틴 스투어트, 로버트 패틴슨, 테일러 로트너 개봉일 11월 15일, 15세 이상 관람가

03 돈 크라이 마미

남편과 이혼한 유림(유선)은 고등학생 딸 은아(남보라)를 데리고 새 동네로 이사를 하고 은아는 같은 반 친구 조한(동호)을 좋아하게 된다. 어느 날 은아는 독서실 옥상에서 조한을 만나는데 그의 친구 박준(권현상), 한민구(이상민)가 나타나 은아를 때리고 성폭행한다.

유림은 가해 청소년들의 처벌을 원하며 소송하지만, 재판에서는 두 명에게는 무죄, 한 명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된다. 가해 청소년들은 은아를 성폭행할 때 찍어둔 동영상으로 은아를 협박해 또다시 몹쓸 짓을 저지른다. 유림은 분노에 치를 떨며 손수 응징에 나선다.

겉으로 큰 외상을 남기지 않아 성폭행 범죄를 벌 것 아닌 일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한 우리 사회에서 성폭행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남기는지 보여준다.

감독 김용한 출연 유선, 남보라, 동호, 권현상, 이상민 개봉일 11월 22일, 15세 이상 관람가

NEW FILMS



02 심플 라이프

로저(류더화)의 가족이 모두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로저와 단둘이 남아 단출하게 살아가는 늙은 가정부 아타오(에더센). 로저가 출장을 간 사이 뇌졸중(중풍)으로 쓰러지고 로저는 그녀를 돌본다. 늘 옆에 있던 아타오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로저는 아타오가 병원에 실려간 뒤 그녀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기 시작한다. 그녀가 자신에게 수십 년간 베풀었던 정성이 단순히 가정부의 ‘일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다.

아타오를 노인요양병원에 입원시키고 로저는 1주일에 한 번씩 그녀를 찾아가다. 아타오의 병원 친구들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로저는 “양아들”이라고 대답한다.

여주인공역의 배우 에더센은 이 영화로 베니스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영화는 또 지난 5월 전주국제영화제 폐막작으로 상영됐다.

감독 쉬안화 출연 류더화, 에더센 개봉일 11월 22일, 전체 관람가

04 당신은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유명한 극작가이자 연극 연출가인 앙뜨완이 죽자 그의 집사는 앙뜨완과 함께 일했던 배우 13명에게 부고를 알린다.

앙뜨완은 배우들에게 미리 녹화해 둔 영상을 통해 한 극단으로부터 자신의 작품 ‘에우리디스’의 리허설 영상을 받았으며 이 극단에 공연을 허락해도 되는지 판단해 달라고 부탁한다.

잠자코 영상을 보던 배우들은 갑자기 대사를 말하기 시작한다. 처음엔 혼수를 두는 것 같다가 점점 극에 몰입을 하더니 예전에 공연했던 것처럼 짝을 이뤄 주인공 커플을 연기한다.

올해 칸국제영화제에 초청돼 세계 영화계를 놀라게 한 작품이다. 영화 속에서 연극을 보여주는 이 작품은 실제로 프랑스의 유명한 극작가 장 아누이의 ‘에우리디스’와 ‘사랑하는 앙뜨완’을 결합해 만들었다.

감독 알랭 레네 출연 사빈느 아제마, 마티유 아말릭, 랑베르 윌슨 개봉일 11월 22일, 15세 이상 관람가

문명의 저편, 대자연에서 가져온 그림엽서

20년 동안 지구촌을 누빈 여행작가의 에세이,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연재된 글과 사진을 모아 책으로 엮었다. 마다가스카르, 우간다, 탄자니아, 에티오피아를 비롯해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 여행자의 발길이 좀체 닿지 않는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과 문화를 모았다. '단순한 삶'과 '담백한 만남'은 그가 여행에서 터득한 지혜이다. 짐작을 포기하고 불필요한 일을 걷어내면서 평화를 얻었고, 고된 일상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감사의 마음을 배웠다. 그가 여행에 대해 "감동과 용기를 주는 행위"라고 말하는 까닭이다.

함길수 지음/상상출판/380쪽/1만4천800원

오래 살아남은 것들의 특별함

곤충학자이자 사진작가인 피오토르 나스크레츠키가 아프리카 모자지 숲, 가나 아트와 숲 등 세계 오지를 돌며 '태초의 생명'이 숨 쉬는 찰나의 순간을 앵글에 담아냈다. 투구개, 투아타라 도마뱀, 테이블마운틴 바퀴벌레 등 '잔존 생물'이 지구 진화의 역사를 보여주는 산증인으로 등장한다. 첨단 촬영 기술을 동원해 곤충의 더듬이털, 나뭇잎에 맺힌 이슬 한 방울까지 생생하게 포착해 냈다.

피오토르 나스크레츠키 지음, 지어울 옮김/글항아리/420쪽/5만 원



디자인을 찾아 떠난 북유럽 여행기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의 위도는 북위 60도이다. 스웨덴 스톡홀름과 덴마크 코펜하겐도 위도가 매우 높다. 이러한 지리적 환경 때문에 북유럽은 겨울이 길고 평균기온이 낮다. 그래서 북유럽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집 안을 꾸미는 데 재주가 있다. 아르네 야콥센, 알바 알토 같은 디자인 거장도 이 지역 출신이다.

이 책은 디자이너와 기획자로 일하고 있는 여성 두 명이 3년 동안 북유럽의 '디자인'과 '미술'을 만난 결과물이다. 덴마크 디자인박물관, 스웨덴 스톡홀름 시립도서관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문화 명소들이 소개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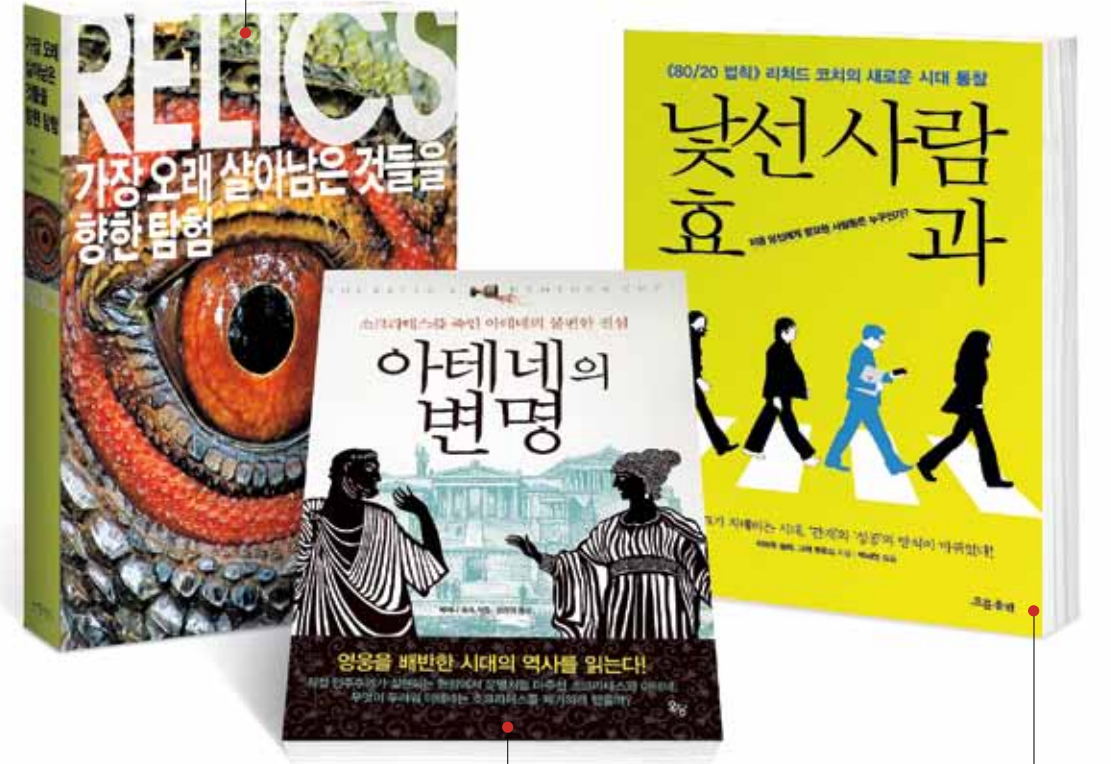
김진진, 이홍안 지음/시드페이퍼/328쪽/1만3천800원

건강한 삶을 위한 올바른 질병 예방법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많은 정보가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학 정보는 다루는 범위가 넓고, 그대로 실천하기에는 버거운 편이다. 게다가 정확하지 않은 지식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소속 교수진이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한 질병 예방법을 정리했다. 연령과 성별에 따라 주의해야 할 질병을 구분하고, 행동에 옮기기 쉽도록 기술한 것이 특징이다. 하루 30분의 운동이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이유, 휴일에 쉬다고 해서 피로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 등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준다.

송용상 외 지음/연합북스/308쪽/1만2천 원



아테네가 소크라테스를 죽인 이유

'악법도 법이다'고 역설하며 독배를 마시고 죽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한 책. 다큐멘터리 제작자인 저자는 10년 동안 소크라테스 관련 자료와 유적을 찾아다니며 아테네가 왜 소크라테스를 죽음으로 내몰 수밖에 없었는지 살펴본다. 소크라테스의 재판이 열릴 무렵 아테네는 두 차례에 걸친 스파르타와의 전쟁으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상태. 이 때 소크라테스가 사회 현안을 비판하고 나서자 화풀이 대상이 필요했던 아테네 시민들이 그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베테너 휴즈 지음, 강경이 옮김/독당/620쪽/2만8천 원

낮선 사람과 친한 친구, 누가 더 도움이 될까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어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에게 연락을 해 보는 게 좋을까. 절친한 친구일까, 얼굴만 몇 번 본 지인일까. 저자는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점점 '알은 인맥'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현대사회가 네트워크 시대로 접어들면서 깊고 좁은 인맥보다

얕고 넓은 인맥이 더 큰 효용을 가져다 준다는 것. 과거 구조화된 시대에는 '강한 인연'만으로도 핵심 정보를 얻을 수 있었지만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약한 인연'이 "가장 가볍고 부드러우면서 가장 자유로운" 정보를 가져다 주고 있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리처드 코치 지음, 박세연 옮김/흐름출판/424쪽/1만6천800원

‘상송 디바’ 파트리샤 카스 7년 만의 한국 무대

프랑스가 자랑하는 ‘상송 디바’ 파트리샤 카스가 12월 2~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내한 공연을 펼친다. 이번 공연은 카스가 ‘상송의 전설’로 불리는 에디트 피아프(1915~1963)의 50주기를 기념해 세계 11대 도시에서 진행되는 투어의 일환이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투어에 포함됐다. 카스는 이번 공연에서 피아프 헌정 음반 ‘카스 샹트 피아프(Kaas Chante Piaf, ‘카스가 피아프를 노래한다’는 뜻) 수록곡과 자신의 히트곡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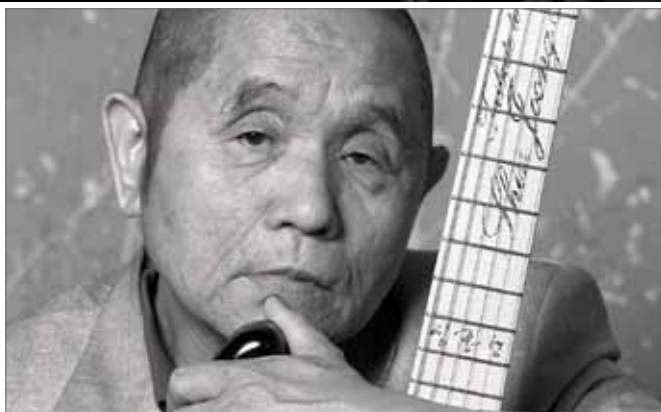
일 정	12월 2일 오후 7시·3일 오후 8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티켓	VIP석 16만5천 원, R석 13만2천 원, S석 9만9천 원, A석 6만6천 원, B석 3만3천 원
주최	KBS미디어, 뮤직컴퍼스
문의	02-2052-1386~7



사카모토 류이치 트리오 내한 공연

일본 피아니스트 사카모토 류이치(坂本龍一)가 이끄는 트리오가 12월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내한 공연을 한다. 사카모토 류이치가 트리오 구성으로 한국 팬들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공연에서 사카모토는 바이올리니스트 주디 강, 첼리스트 자크 모렐렌 바움과 함께 무대에 올라 ‘1996’ 앨범 수록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1996’은 사카모토가 1996년 발표한 앨범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런스(Merry Christmas Mr. Lawrence)’, ‘레인(Rain)’ 등 기존 히트곡을 트리오 구성으로 편곡해 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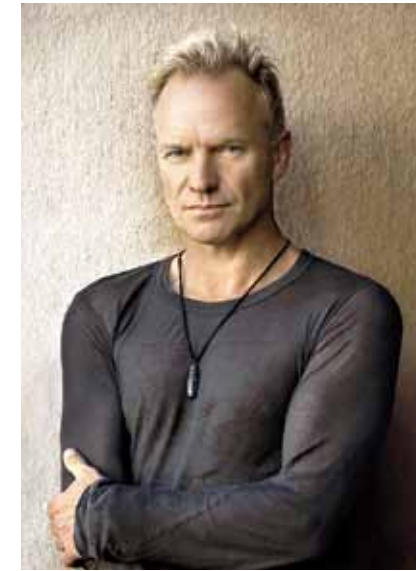
일 정	12월 9일 오후 4시·8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티켓	R석 16만 원, S석 12만 원, A석 8만 원, B석 5만 원
주최	빈체로
문의	02-599-5743



‘한국 록의 대부’ 신중현의 단독 콘서트

‘한국 록의 대부’로 불리는 기타리스트 신중현이 12월 1~2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단독 공연을 한다. 2010년 헌정 공연 이후 2년 만의 국내 공연이다. ‘더 기타리스트(The Guitarist)’란 타이틀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1,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커피 한 잔’, ‘봄비’, ‘아름다운 강산’, ‘미인’ 등 대중적인 히트곡을, 2부에서는 신중현의 사이키델릭 록 사운드를 감상할 수 있다. 신중현의 아들인 기타리스트 신윤철, 드러머 신석철이 이끄는 4인조 밴드와 12인조 현악 합주단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일 정	12월 1~2일 오후 7시,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
티켓	R석 9만9천 원, S석 8만8천 원, A석 7만7천 원
주최	서던스타ENT, HCMP
문의	02-3143-5156



스팅, 솔로 데뷔 25주년 기념 내한 공연

영국 팝스타 스팅(Sting)이 12월 5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네 번째 내한 공연을 한다. 솔로 데뷔 25주년을 기념해 지난해 시작한 글로벌 투어 ‘백 투 베이스(Back to Bass)’의 일환이다. 1977년 록밴드 ‘더 폴리스(The Police)’의 보컬 겸 베이시스트로 데뷔한 스팅은 철학적인 가사, 서정적인 멜로디의 노래로 전 세계 음악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1985년 솔로로 전환한 그는 ‘더 폴리스’ 시절까지 포함해 약 1억 장에 달하는 음반 판매량을 기록 중이며, 미국 그래미상도 16차례나 수상했다. 특히 1993년 발표한 ‘쉐이프 오브 마이 하트(Shape of My Heart)’는 영화 ‘레옹’의 주제곡으로 사용되면서 큰 인기를 누렸다. 이번 공연에서 스팅은 5인조 밴드와 함께 폴리스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히트곡을 망라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일 정	12월 5일 오후 8시,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티켓	FR석 19만8천 원, R석 16만5천 원, S석 13만2천 원, A석 9만9천 원, B석 7만7천 원
주최	라이브네이션코리아, CJ E&M
문의	02-332-3277



미국 팝스타 메이시 그레이 첫 내한 공연

미국 팝스타 메이시 그레이가 12월 12일 서울 광장동 유니클로 악스(구 ‘악스코리아’)에서 한국 팬들과 처음으로 만난다. 1999년 1집 ‘온 하우 라이프 이즈(On How Life Is)’로 데뷔한 그레이는 이 앨범으로 제43회 그래미상에서 최우수 여성 보컬상을 받았다. ‘온 하우 라이프 이즈’는 전 세계에서 700만 장 넘게 팔렸으며, 특히 수록곡 ‘아이 트라이(I Try)’는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전공인 솔(Soul)은 물론 록, 팝, 힙합 등 장르를 넘나드는 음악 세계를 구축해 온 그레이는 이 시대 최고의 보컬리스트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그는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2천500만 장 이상의 음반 판매량을 기록 중이다. 그레이는 이번 공연에서 최근작인 ‘커버드(Covered)’ 수록곡과 ‘아이 트라이’, ‘두 섬싱(Do Something)’ 등의 히트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일 정	12월 12일 오후 8시, 서울 광장동 유니클로 악스
티켓	9만9천 원
주최	알리엔코
문의	02-512-6706



호주 일렉트로닉 듀오 나이프파티의 무대

호주 일렉트로닉 듀오 나이프파티(Knife Party)가 12월 15일 서울 광장동 쉼라톤 그랜드 워커힐 시어터에서 첫 내한 공연을 한다. 공연기획사 브이유(VU) 엔터테인먼트 주관으로 올해부터 국내에서도 열리는 일렉트로닉 파티 ‘갓스 키친(Gods Kitchen)’의 두 번째 무대다. 나이프파티는 호주를 대표하는 일렉트로닉 밴드 펜듈럼(Pendulum)의 보컬 록 스와이어, 베이시스트 개러스 맥그릴런이 결성한 프로젝트 그룹이다. 이 그룹은 과격하다 싶을 만큼 거친 베이스·드럼 연주에 날카로운 덤스텝(Dubstep, 일렉트로니카의 일종) 사운드를 엮은 음악을 선보인다. 사회 비판적인 가사로도 유명하다. 나이프파티 외에도 일렉트로닉계의 셋백 모드 퍼스팅(Mord Fustang), 일렉트로닉 밴드 이디오테이프(Idiotape)의 DJ 디구루(Dguru) 등이 출연한다.

일 정	12월 15일 오후 10시, 서울 광장동 쉼라톤 그랜드 워커힐 시어터
티켓	7만7천 원
주최	브이유 엔터테인먼트
문의	010-3360-7846



이탈리아 마당극 '한꺼번에 두 주인을'

이탈리아의 요절복통 마당극 '한꺼번에 두 주인을'이 오랜만에 무대에 오른다. '한꺼번에 두 주인을'은 현대 코미디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이탈리아의 '코메디아 델라르테'를 한 단계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받는 카를로 골도니가 1745년에 쓴 작품.

코메디아 델라르테는 탐욕스러운 노인, 잘난 체하는 학자, 허풍 떠는 군인, 맹목적인 사랑에 빠진 연인, 꾀가 많거나 아둔한 하인 등 전형적이고 유형화된 캐릭터를 배우들이 즉흥적으로 연기하며 조롱과 풍자로 웃음을 선사했던 장르다.

'빌리 엘리엇'의 작가 리 홀이 18세기 희극성을 유지하며 동시대성을 강조해 각색한 버전으로 선보인다.

사랑 때문에 극단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는 플로린도와 애인을 찾아 남장하고 먼길을 떠나 온 베아트리체. 이 두 사람을 주인으로 모시게 된 하인 트루팔디노와 다른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플로린도, 베아트리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인간 군상의 실수와 오해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죄충우돌, 중황무진하며 요절복통 웃음을 선사한다.

일정	12월 1~30일 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공휴일 오후 3시(4일, 수요일 공연 없음), 서울 명동예술극장
티켓	2만~5만 원
문의	1644-2003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25주년 기념 월드 투어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이 25주년 기념 월드 투어 공연으로 7년 만에 한국 관객을 찾는다. 2005년 월드 투어를 매진시켰던 브래드 리틀이 팬텀 역으로 다시 온다.

앤드루 로이드 웨버가 작곡한 '오페라의 유령(Phantom of the Opera)'은 19세기 파리 오페라 하우스를 배경으로 흉측한 얼굴을 마스크로 가린 채 지하에 숨어 사는 천재 음악가 팬텀과 프리마돈나 크리스틴, 크리스틴을 사랑하는 귀족 청년 라울의 이야기다.

1986년 마이클 크로퍼드와 사라 브라이트만 주연으로 영국 웨스트엔드에서 초연하고 1988년 미국 브로드웨이에 진출해 토니상 7개 부문을 차지하고 나서 세계 최장기 공연, 최고 매출, 최다 관객 등 모든 기록을 석권했다. 주제곡 '오페라의 유령'부터 '밤의 노래(The Music of the Night)', '생각해 줘요(Think of Me)' 등 일반인에게도 익숙한 명곡들로 채워져 있다.

일정	12월 7일~2013년 1월 31일 평일 오후 8시·주말 오후 2시/7시,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
티켓	5만~16만 원
문의	1577-3363



바이올리니스트 사라 장 전국 리사이틀 투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사라 장이 12월 전국 리사이틀 투어를 펼친다. 사라 장은 1990년 뉴욕 필하모닉 산년음악회 협연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15세 때 세계 3대 오케스트라로 꼽히는 베를린 필하모닉, 빈 필하모닉, 뉴욕 필하모닉과 모두 협연했다. 그는 데뷔 이후 세계 최정상급 오케스트라, 아티스트와 함께 20장의 앨범을 발표하는 등 신동에서 세계 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로 거듭났다. 현재 전 세계 무대를 누비며 1년에 100회가 넘는 연주 일정을 소화해내고 있다.

이번 리사이틀 투어는 작품성과 대중성을 모두 만날 수 있는 곡들로 꾸며진다.

사라 장이 세계 주요 무대에서 연주하며 호평받은 비탈리의 '샤콘느', 뮤지컬과 영화음악으로 널리 알려진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바이올린의 가장 낮은 음인 G현으로만 연주하는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 등을 들려준다. 또 뉴욕타임스로부터 '사라 장은 압도적인 감각을 바탕으로 기교적으로 찬란하고, 개성 있고 활기가 넘치는 연주를 선보였다'는 호평을 받은 프로코피예프의 '바이올린 소나타 2번'을 한국 무대에서 처음 연주한다.

한편 4살 때 바이올린을 시작했으며 세계 최연소 레코딩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사라 장은 데뷔 앨범 발표 20주년을 기념해 '사라 장-EMI 레코딩 전집'을 발매할 예정이다.

일정	12월 16일 오후 7시,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1일부터 지방 공연)
티켓	6만~16만 원
문의	02-541-3183

최고 성악가와 함께하는 서울시향의 모차르트 '레퀴엠'

서울시향이 정명훈 예술감독의 지휘로 모차르트의 미완성 유작인 '레퀴엠'과 교향곡 41번 '주피터'를 공연한다.

정명훈이 예술감독으로 취임한 2005년 이후 모차르트 음악만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차르트는 1791년 12월 5일 숨지기 직전까지 이 작품을 손에서 놓지 않았으나 결국 끝마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그의 제자인 프란츠 크사버



쥬스마이어가 곡을 완성했다. 미완성 유작임에도 '레퀴엠'은 모차르트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종교음악이라는 장르적 엄격함과 모차르트 특유의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마침 공연 날이 모차르트의 서거일 바로 다음날이라 그 의미가 더 깊다. 게다가 이번 공연에는 최고의 독창진이 가세해 완성도를 높인다. 바로크 음악 분야에서 입지를 단단히 다지고 있는 소프라노 임선혜, 베를린 도이체 오페에서 주역으로 활동 중인 테너 강요셉, 올해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서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의 타이틀 롤을 맡아 극찬을 받은 베이스바리톤 사무엘 윤 등이 무대에 오른다.

이날 전반부에 연주할 교향곡 41번 '주피터' 역시 모차르트의 마지막 교향곡으로 유명하다. 모차르트가 16일 만에 작곡한 것으로 알려진 이 곡은 그의 교향곡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지고 가장 사랑받는 작품이기도 하다.

일정	12월 6~7일 오후 8시,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티켓	1만~12만 원
문의	1588-1210